

# 유엔기후총회, '선진국 분담금' 두고 진통...또 폐막 연장

### 밤샘 협상...“선진국들, 연 421조 부담금 상향 합의” 보도 최빈국 대표단 회의장 나가...COP29 의장 “협력 강화” 촉구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진행 중인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선진국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으로 진통 끝에 결국 예정된 폐막일을 넘겼다.

외신에 따르면 회의는 당초 지난 23일(현지시간) 폐막 예정이었으나, 결국 예정된 합의 시한을 넘겨 치열한 협상이 계속됐다.

COP29 의장단은 2035년까지 연간 1조3천억달러(약 1천836조원)의 기후 대응 재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 중 연 2천500억달러(약 351조원)를 선진국이 부담한다는 합의문 초안을 지난 21일 공개했다.

선진국 부담액 2천500억달러는 2009년 설정된 목표 1천억달러(약 140조원)의 2.5배 수준이지만, 기후변화의 위협에 노출된 개발도상국들은 그동안의 책임이 큰 선진국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주최국 아제르바이잔은 당초 폐막일인 전날까지 만장일치로 합의문이 채택되길 바랐지만, 이번에도 공식 일정을 넘긴 셈이다. 지난해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28차 총회는 하루를 넘겨서, 재작년 이집트에서 열린 27차 총회는 이틀을 넘겨 폐막했다.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합의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최소 5천억달러(약 703조원)를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선진국들의 실제 부담은 훨씬 낫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 국가는 가뭄, 홍수, 해수면 상승, 폭설, 흑한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기후로 타격을 입었다. 그 피해를 보상하고, 청정에너지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금 부담을 안게 되는 선진국의 일



‘돈을 지불하라’(PAY UP) 기후 활동가들이 지난 23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부 대표들은 자국 경제의 어려움 등을 거론하며 2천500억달러가 현실적인 수치라고 반박한다.

밤샘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선진국들이 분담금 인상에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선진국들이 분담금을 2035년까지 연간 3천억달러(약 421조원)로 올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80여개국으로 구성된 소규모 섬나라들과 최빈국 대표단은 선언문 초안을 발표하는 회의장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말라위 협상 대표인 에반스 데이비슨은 회의장을 떠나면서 “이 문안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 의견이 반영될 때까지 회의장을 떠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수자나 무하마드 콜롬비아 환경 장관도 언론에 “우리는 협상하기 위해 여기 왔지만 현재로서는 우리 의견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회의를 떠났다”고 말했다.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환경부 장관이기도 한 목타르 바바예프 COP29 의장은 일부 대표단이 회의장을 나가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리 모두 바쿠를 떠날 때 핵심 목표에 대한 좋은 결과 없이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걸 안다”며 “남아 있는 격차를 좁히기 위해 서로 간 협력을 더 강화해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 필리핀 부통령 ‘유사시 마르코스 대통령 암살’ 위협

### 두테르테 딸 “내가 피살되면 대통령·영부인 등 죽이라고 지시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치적 동맹에서 대립 관계로 바뀐 세라 두테르테(사진) 부통령이 유사시 마르코스 대통령 등을 암살할 뜻을 나타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부통령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겨냥한 암살 계획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암살되면 마르코스 대통령을 죽이도록 자신의 경호원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내 경호팀의 1명에게 얘기했다”면서 “만약 내가 살해당하면 BBM(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니셜), 리자 아라네타(영부인), 마틴 로무알데스(하원의장)를 죽이라고 했다. 농담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죽으면 그



들을 죽일 때까지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고 그는 앞다퉀 말했다고 덧붙였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인 두테르테 부통령의 이런 강도 높은 위협 발언에 대해 대통령궁은 즉각 마르코스 대통령에 대한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이 문제를 국가 안보 문제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궁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생명에 대한 모든 위협은 항상 심각하게 받아들이야 하며, 이 위협이 명확하고 확실한 용어로 공개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호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에 대한 모든 위협을

탐지, 억제하고 막기 위해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테르테 부통령이 이 같은 ‘막말’을 한 것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인 로무알데스 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데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로무알데스 의장은 부통령실 예산을 3분의 2 가까이 대폭 삭감했다. 하원은 또 두테르테 부통령의 예산 유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두테르테 부통령의 수석보좌관 줄레이카 로페스를 구금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2022년 대선에서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이뤄 당선되면서 두 가문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구축했다. 그러나 이후 친중 성향인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마르코스 정부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정면충돌하고 친미 노선을 걸으면서 두 가문은 불화를 빚기 시작했다. /연합뉴스

## 1조4천억 가치 ‘저주받은 에메랄드’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 380kg 세계 최대 ‘바이아 에메랄드’...美일반입 이후 소유권 분쟁

무게 886파운드(약 380kg)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에메랄드 원석(사진)이 출토 23년 만에 ‘고향’ 브라질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레지 월턴 판사는 전날 미국 법무부의 ‘바이아 에메랄드’(Bahia Emerald) 몰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에메랄드의 현 보유자 측이 브라질 정부와 협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월턴 판사는 “에메랄드의 반환을 막기에는 부족한 주장”이라며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몰수 판결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1년 브라질에서 출토된 바이아 에메랄드는 9개의 개별 결정으로 이뤄진 원석이다. WP는 에메랄드의 가치를 10억 달러(약 1조4천억 원)로 추정했다.

출토되자마자 미국으로 밀수출된 이 에메랄드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고와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저주받은 에메랄드’라는 별명이 붙었다.

미국 내 소송에서는 실제로 130만 달러(약 18억 원)를 지불한 아이다호주 출신 사업가 키트 모리슨의 컨소시엄에 소유권이 인정됐다.

그러나 2015년 캘리포니아에서 이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브라질 정부가 나서면서 분쟁은 이어졌다.

브라질 정부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국가적 보물이므로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브라질 법원이 몰수를 결정했고, 브라질 정부는 미국에 사법공조에 따른 몰수 집행을 요청했다.

미국 정부가 이에 동의해 집행에 나서자 모리슨 측이 맞서면서 다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번 소송에서는 바이아 에메랄드가 브라질에서 반출된 과정이 불법적이었



다는 브라질 정부의 주장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앞서 에메랄드를 반출한 광부들이 세관 서류 조작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브라질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모리슨은 “투자자로서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통제할 수 없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면서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만약 불복 절차를 밟는다면 바이아 에메랄드의 ‘저주받은 여정’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연합뉴스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